



고창은 호남방어의 요충지였다! 무장읍성에서 조선 최첨단 비밀병기 '비격진천뢰' 출토

무장읍성에서 조선 시대 훈련청과 군기고로 추정되는 군사시설과 조선 시대 최첨단의 화약 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11점이 무더기로 출토되면서 무장면을 비롯한 고창군이 호남방어의 요충지였음이 확인되었다.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은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하여 1417년(태종 17)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되었으며,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다.

비격진천뢰는 조선 선조 24년(1591년)에 발명됐으며, 목표물에 날아가서 천둥번개와 같은 굉음과 섬광, 수많은 파편을 쏟아내면서 폭발하는 작렬(炸裂) 시한폭탄으로, 중완구(中碗口)라는 화포에 장전해서 사용했다.

* 작열(灼熱) : 포탄 따위가 터져서 짝 퍼짐

11월 15일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은 “실제 원형으로 잘 남아 있어 구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었고 이는 무장읍성이 호남지역의 중요한 군사요충지였음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군사학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잘 연구 해서 한국 전쟁사의 획기적인 사실로 보고하고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



비격진천뢰 출토상태



비격진천뢰 사진



포대시설



고창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연안-하구-육상생태계를 습지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국내 첫 사례



고창군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10월 24일 지정·고시됐다.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는 아산 반암교에서 용선교까지(면적 722,000㎡)로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써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 생태축)이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해양수산부)과 운곡습지(환경부)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이며 연안과 내륙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생태축)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서식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노랑부리백로, II 급인 구렁이, 멧꿩, 남생이, 검은머리물떼새,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등을 포함, 총 754종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군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하구 습지에 대하여 환경부·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1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야생동·식물 서식환경 보전 및 보호로 생물다양성 확보와 운곡습지, 고창갯벌, 선운산도립공원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뤄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18 하반기 현장방문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의안 20건을 심의하고, 고창읍성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비롯한 12곳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마치고 제25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 고창국화축제,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 등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봉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경신 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이봉희 의원은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김영호 의원은 한빛원전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요구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신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규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견실시공”을 주문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별 의안 처리결과

소 관 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합 계		20건	
자치행정 위원회 (13)	40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발의
	27	고창군 추모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실
	30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주민복지실
	23	2019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	자치행정과
	24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19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	자치행정과
	31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2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과
	35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과
	36	고창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종합민원과
	28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과
	2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 무 과
	39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22	2019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환경시설사업소
산업건설 위원회 (7)	2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민생경제과
	33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민생경제과
	34	고창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민생경제과
	29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도시과
	37	고창군 경관 조례안	건설도시과
	38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건설도시과
41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9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농업기술센터	

아이캔어린이집, 고창군의회 견학



아이캔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등 70여명이 지난 10월 17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 견학했다.

이 날 조규철 의장은 아이들에게 의회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고창군의회 역할과 회의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 하였으며 “이번 견학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앞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 앞두고 직무연수 가져



고창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에서 직무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 운영방안 개선과 전문성을 함양,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직무연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대비하여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제8대 의회는 직무연수 및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의원 간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19일 개최하여 다음 달 19일까지 3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심사 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각 실과소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다.

또한,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하여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조규철 의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장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의회사무과에 방문하여 방청을 신청하면 방청할 수 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준공 완료 자연생태학습장 등 서해안권 대표 갯벌생태관광 명소



심원면 일대에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가 조성 되어 새로운 서해안권 대표 갯벌생태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에는 갯벌 탐방로 14km, 해송 숲길탐방로 0.8km와, 교량 2개소, 탐방객 및 자전거 쉼터 6개소, 오토캠핑장 41면, 친환경주차장 203면, 공중 화장실 1개소, 물놀이조합놀이대와 쭈꾸미조합놀이대, 족구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모과나무 외 41종 9만 6560여주의 다양한 관목·교목·초화류 등을 혼합식재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생태학습장을 조성했다.

아름다운 갯벌과 자연의 품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평일 1만5000원, 주말·공휴일 2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성수기 7~8월/3만5000원) 체육시설인 족구장과 배구장, 농구장은 2시간에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미끄럼틀 등이 마련된 물놀이시설인 놀이대와 쭈꾸미조합놀이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며 이용요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품 갯벌생태지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와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캠핑 공간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국가지질공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고창갯벌을 관광자원화하고 갯벌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서해안권 대표 갯벌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 확정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준비하는 천년전복!'



2019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상징물(포스터, 엠블럼, 슬로건)이 최종 확정됐다.

포스터는 경기에 참가하는 각 종목별 선수들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힘찬 붓터치로 역동감 있게 표현했으며, 고창의 청정 생태 환경과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담아내어 고창의 자긍심을 부각시켰다.

엠블럼은 고창군의 머릿글자인 '고'를 모티브로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청정함의 상징인 나뭇잎을 힘차고 역동적인 체육인으로 의인화해 표현했으며, 슬로건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준비하는 천년전복!'으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강조하면서, 기운차고 용기 있게 날아오르는 전복의 이미지를 담았다.

한편, 마스코트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전통과 문화의 도시'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고창군 캐릭터인 '모로모로'를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매결연 고창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등 상생발전 '맞손'

고창군과 서울시 마포구가 지난 11월 9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고창군 대신면 출신인 유동균 마포구청장과의 인연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심원면과 마포구 서강동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던 협력이 바탕이 되어 추진하게 됐다.

자매결연 체결식이 있기까지 양 도시는 교류협력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등 4개 분야를 중점 교류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추진키로 협의했다.

마포구청장은 "고창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서 더욱 뜻깊고, 도시와 지역에 주목해야하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도농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행정혁신의 해법을 찾는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각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수는 "마포구와 고창군이 많은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농·특산물 직거래, 문화·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농간 상호 교류협력을 이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 동반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으로 '한반도 첫 수도'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고창군과 예로부터 서울의 관문이자, 오늘날에도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아시아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포구가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가면서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국내 자매도시로는 서울시 관악구·송파구·성북구, 부산시 동래구, 경북 상주시, 경북 고령군 등 6개 도시와 국외 우호교류 도시로는 일본 고치현 시만토정, 중국 조장시 등으로 대표축제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제9회 애향대상 증정식' 애향대상 故조병채 고창병원장 자랑스런 고창인,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



故 조병채 고창병원장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지난 11월 13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제9회 애향대상 증정식을 개최했다.

고창 영선고 사물놀이패의 축하공연과 '인문학 도시 고창'에 걸맞은 조순임 고창군 낭송문학협회장의 시낭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애향운동 헌장 낭독, 재직기념패 및 임원 위촉장, 지회장 임명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나눔과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율력한 심원면지회가 '우수지회상'을 수상했으며, 고향의 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기여한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이 '자랑스런 고창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대미를 장식한 '애향대상'에는 평생을 의술로 봉사하며, 지역의 인재와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한 故조병채 고창병원장이 수상했다.

안재식 본부장은 "애향운동본부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고향을 잘 가꾸고 다듬으면서 더 나은 지역,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고창군을 위해 애향심을 발휘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애향운동본부에서는 해마다 군민화합 교례회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대표단체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랑스런 고창인을 선정하여 애향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제3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박혜인 어린이 '대상'



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문인 '제3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박혜인(광주 운남초 6) 어린이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소리 꿈나무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 7명이 본선에 올랐다.

지난 11월 12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본선 대회에서 박혜인 어린이는 춘향가 중 '일절통곡' 대목을 불러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연히 판소리 공연을 보러 갔다 매력을 느껴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박혜인 어린이는 새로운 대목을 배울 때 가장 설레고, 소리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며 판소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당찬 꿈을 밝혔다.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올해 31회째를 맞이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명성이 높고 있다.

'제28회 동리대상' 이보형 판소리 연구가 수상 영예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인 '제28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지난 11월 6일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동리대상은 1960년대부터 판소리 진흥에 기여해 온 이보형 판소리연구가에게 수여됐다.

이보형 연구가는 1935년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 나운영 교수에게 서양음악 작곡을 배웠다.

이 연구가는 판소리 음악 연구의 전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은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 월간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의 후원으로 매주 실시되었던 판소리 감상회 (총 100회까지 진행)를 주도함으로써, 판소리 완창(完唱) 이라는 새로운 공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판소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1990년부터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세기 전반의 SP음반을 발굴·연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에서 음악학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도 매진하여 평생에 걸친 그의 판소리 관련 연구는, 판소리가 인류무형문화재로 우뚝 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흥덕면 후포 보건진료소 '문 활짝' 진료실·물리치료실·건강증진실 등 쾌적



흥덕면 후포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후포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어 본격적으로 진료를 개시했다.

흥덕면 후포 보건진료소 (후포리 503-1번지 일원)는 716㎡의 부지에 진료실, 건강증진실 등 연면적 152.28㎡의 규모로 신축됐다.

흥덕면 후포리 일원은 주민 640여명이 거주하는 의료취약지역으로 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을 추진했다.

후포 보건진료소가 개소되면서 고창군은 37개 보건기관이 군 전역에 포진돼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과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활력 넘치는 삶과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방네 읍면 소식



고창군 성송체육회관 보수·보강 완료 새 단장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고창군 성송체육회관(성송면 관정리)이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부터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체육회관은 샤워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음향시설과, 체육관 바다, 지붕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성송체육회관은 인근 성송초, 고창남중 재학생들의 방과 후 실내체육활동과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해 나가겠다"며 "쾌적한 체육시설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이종면 상임부회장 '농업인의 날' 맞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영예

(사)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이종면 상임부회장이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안정정직 농가소득 모델 제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아산면에 거주하는 이종면 상임부회장은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쌀 전업농에만 머물지 않고 한우 사육 및 다품목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사)고창군 자율방범대 상임 부회장으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봉사활동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이 높게 평가됐다.

이종면 상임부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 분들을 대표해 받은 것으로 알고 고창군 농생명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 백년가게 1호점 '개미상회' 현판식 가져

고창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개미상회'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백년가게'로 선정되어 현판식을 가졌다.

'개미상회'는 1985년 5월에 창업하여 33년째 영업 중에 있다.

야채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청과물 상회인 '개미상회'는 배우자와 아들도 운영에 참여하는 가족경영으로 지속운영 가능한 점포로 거듭나고 있으며, 채소를 직접 재배·공급하여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냉동·냉장창고를 보유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품질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미상회 임정숙 대표는 "오래되고 본받을 좋은 다른 가게가 많지만 우리 가게를 백년가게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백년가게라는 인증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이 검증된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신림면, 푸드마켓 자원봉사단 발대식

고창군 신림면에서 푸드마켓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기부물품을 즐겁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된 이번 봉사단은 기관단체 회원들로 구성됐다.

푸드마켓사업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복지사각지대와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임리경로당을 비롯해 35개소에 식료품과 후원품을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면민들을 위해 발대식 이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철 신림면장은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푸드마켓 물품을 전달하는 지역의 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에 힘쓰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기틀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원면 하전마을, '바지락 회무침과 바지락 들깨탕' 전북음식문화대전 도지사 표창 수상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심원면 하전마을이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바지락을 활용한 '바지락 회무침과 바지락 들깨탕' 요리로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심원면 하전어촌계 권영주 계장은 "고창 바지락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바지락축제'를 개최하고 음식문화대전에도 출전하는 등 최고 품질의 고창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창 바지락의 명품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전북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향토음식의 우수성과 다양성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나눔과 봉사와 기부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와 '기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까이 온정을 나누어 준 분들을 소개합니다.

- ▲재성남고창군민회(회장 이용재)에서 자식농사 잘 키우는 고창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부안면 소재 고창북중학교 16회 졸업생들이 부안면과 아산면 새마을부녀회에 50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김장봉사에 쓰일 예정이며 홀로어르신과 경로당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 ▲성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800장을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가 올해도 '행복나눔 사랑의 고추장 담기' 행사를 통해 고추장 700통(1통/3kg)을 직접담가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했다.
- ▲고창명품고추연구회 이군영 회장이 직접 정성껏 재배해 가공한 고춧가루 30kg(80만원상당)을 고창군에 기부했다.
- ▲상하면부녀회(회장 서순애)가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고창을 석정휴스파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목욕봉사에 소요되는 목욕비와 중식비, 버스임차료는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지원하여 함께 힘을 모아 율력하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 ▲대산신협(이사장 천봉은)이 경로조합원 350여명을 초청하여 '사랑의 점심(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경로조합원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창을 소개 북경반점과 고창사랑회, 한국관소리보존회 고창지부, 노래사랑 실버악단 후원으로 민요 및 부채춤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으며 대산면사무소와 대산방범대, 대산신협 여성봉사회, 신협직원부인회 등 많은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가 더해져 뜻깊고 보람된 자리가 됐다.
- ▲(사)고창군 귀농귀촌 협의회 재능기부단이 고창읍, 신림면 일대에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최고의 초일류 용접 브랜드 현대종합금속 (주)

기업탐방 search Q

고창군 흥덕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현대종합금속(주)은 1975년 9월 서한개발(주)로 시작하여 1987년 1월 현대종합금속(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용접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초일류 용접 브랜드다.

2008년 7월 전라북도-고창군-현대종합금속 간의 MOU를 체결하고 흥덕농공단지 부지에 2009년에 1공장, 2012년에 2공장을 설립했다.

현대종합금속(주)은 1977년 포항 공장 설립 이후 서남해안 조선 해양 클러스터 내 조선소, 조선용 블록, 기자재 업체에 고품질 용접 재료를 전용 공급하기 위해 고창공장을 설립했다.

현대종합금속(주) 고창공장은 흥덕농공단지에 약 15만5천㎡의 부지에 약 3만㎡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용접재료인 플렉스코어드 와이어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총 10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 중 하나로 고창군의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현재는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주요 18개 국가에 생산공장과 판매 법인지사를 설립, 세계 80여개 국에 용접재료와 용접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국내 용접업계 최초로 2억 달러 수출을 달성, 세계와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조선소와 중공업 회사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용접솔루션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선 및 중공업에 적용되는 현대종합금속의 플러스 코어드 와이어와 자동용접 플러스는 세계 최고의 품질의 제품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종합금속 고창 김우열 공장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고창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일류 기업으로 정진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홈페이지 : www.hyundaiwelding.com
전화번호 : 063-561-6060



'한 잔'만 마셔도 운전 안돼요!!

-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도교법 개정 필요)
 -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예정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현행, 2001년 이후 음주운전 3회적발)
 - 고속도로 음주운전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 취소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대상에서 음주운전자 배제
-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 (도교법 개정 필요)
- 차량 몰수 대상 요건 강화 (음주운전사범 처벌 지침)
 -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 >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
 -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차량을 몰수
 - > 중상해 사고 야기 추가
- 2018. 11. 1 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매주 1회 전국동시)



본격적인 김장철!!! 김장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배출방법

김장재료를 다듬으면서 나온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는 투명비닐봉지 담아 배출
- 배추, 무, 양파, 마늘의 껍질 등 흙이 묻은 김장쓰레기, 지푸라기, 노끈

물로 씻거나 소금물에 절이는 등 김장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기에 배출

- 배추, 절임배추, 무, 무청 등 음식물쓰레기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는 5~10cm 내외 크기로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

수거시간

아침 8시 이후

※ 주말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 일자리 상담 : 민생경제과 경제일자리팀
(☎560-2365~6)



연번	업 체 명	인원	모집직종	근 무 조 건	마감일	근무지
1	서울시니어스 엠엔에스고창	1	건설팀 경리사무원	월급 170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창읍
2	서울시니어스 엠엔에스고창	1	객실관리원	연봉 2,600만원 주6일근무/1일8시간 3교대근무 탄력적휴무제	채용시	고창읍
3	서울시니어스 엠엔에스고창	(남)1 (여)1	분양팀 분양사무원	연봉 2,600만원 주6일근무/09:00~18:00 (토요일근무 희망사항)	채용시	고창읍
4	서울시니어스 타워(주)고창본사	1	사회복지사	연봉 2,200만원~2,400만원 탄력적근무 및 탄력적휴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소지자	채용시	고창읍
5	석정레저(주) (석정힐CC)	(남)1	골프백이동원	연봉 2,400만원 주6일근무 탄력적근무 및 탄력적휴무	채용시	고창읍
6	사임당푸드(영)	1	생산직	시급 7,530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7	고창재가노인 복지센터	1	사회복지사	월급 1,574,00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창읍
8	고창원광 노인복지센터	1	사회복지사	월급 1,574,000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9	지경영농 조합법인	1	계란배송 및 납품운전원	월급 200만원 월급 180만원(수습기간3개월) 주6일근무/08:00~18:00	채용시	고수면
10	(유)태경	1	세무회계 사무관리직 (건설업)	연봉 21,600,000원 주5일근무/09:00~18:00 *운전면허소지자*	채용시	고수면
11	(주)내츄럴코어	(남)1	생산직 (지게차운전)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잔업및주말근무가능자)	채용시	부안면
12	(유)도건 엔지니어링	2	관리부 업무보조원	시급 7,530원 주6일근무 월-금 08:00~18:00 토 08:00~12:00	채용시	흥덕면

이달의 고창 농산물

베리팜 수제 복분자 초코파이

- 판 매 처 : 고창베리팜(영)
- 구 성 : 1박스(20봉*40g)
- 가 격 : 2만원(택배비 별도)
- 주문문의 : 063-563-1764
- 특 징 : 복분자 분말과 청이 가득 들어간 영양간식



고창 지주식 패래김

- 판 매 처 : 고창수협
- 구 성 : 패래김 1속(100장)
- 가 격 : 1만원(택배비 별도)
- 주문문의 : 063-563-6100
- 특 징 : 전통 지주식 양식, 무염산 처리



사서 추천 함께 읽고 싶은 책

일반도서



새의 선물

은희경 / 문학동네 / 1996
성호, 고수, 아산 : 813.6 은97스

“세상이 내게 별반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두 살에 성장을 멈췄다. 나는 알 것을 다 알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성숙할 것이 없었다.” 지방 소읍에서 부모 없이 외톨이로 슬퍼하며 살던 열두살 소녀 진희를 눈을 통해 본 세상과 이웃, 어른들의 모습을 해학을 담은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하나같이 개성있는 인물들의 에피소드에 웃다가도 작가가 던진 빠릿한 농담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켜 보고 싶어질 것이다.

작가소개

은희경

1959년 전북 고창출생
숙명여대 국문과, 연세대 대학원 국문과 졸업
1995년 중편소설 「이중주」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
■ 주요작품
새의선물(1995), 타인에게 말걸기(1997), 아내의 상자(1998),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1998),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2007) 등

고창문화의전당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보물섬

뫼를 올려라! 히스파니올라호 출발!

2018. 11. 29(목) 19:30 고창문화의전당
공연문의_063)560-8041

★ 관 람 료 : 일반 3,000원 / 청소년 1,500원(회원 20%할인)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입장불가)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하여 입장 가능함
★ 예매안내 :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현장 예매 11월 22일(목) ~ 11월 29일(목)(연장예매 주말 제외)
- 고창군민 대상 및 1인 4매 한정
- 고창읍, 연서무소 예매 11월 14(수) ~ 11월 20일(화) 거주지 무선 및 총 10매 배정(좌석 비저장)

주최 : 고창군 주관 : 극단 까치들 후원 : 한국수협원가짜떡주